심재가 참으로 영웅이니 그 문도들 또한 영웅이로다

<50> 명대(明代)의 양명학(陽明學)과 거사불교(2)

왕양명 사후 양명학은 명대 중후기 사상계 주류 차지

불교의 부흥에 이지와 원굉도 두 사제가 크게 기여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를 중심으로 하는 양명학은 '이학'의 한계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사대부들로부터 전격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그 사상적 유사성으로 승가에서도 상당한 반향이 일었다. 특히 자백진가(紫柏眞可)와 감산덕청(憨山德淸) 등 선사들은 양명학을 극찬하면서 이를 무기로 정주이학의 교조주의적인 폐해를 공격했고 우익지욱(藕益智旭) 선사도 "왕양명은 한대(漢代)로부터 송대(宋代)에 이르는 제유(諸儒)를 초월해 직접적으로 공(孔; 공자)·안(顔; 안회)의 심학을 설파했다. 일생동안 오직 '치양지(致良知)'의 세자만을 보였다. 양지는 성령(性靈)의 영명함의 본체이다"(<영봉종론(靈峰宗論)>권4)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양명의 사후에 양명학은 여러 학파가 동시에 일어나 명대 중후기 사상계의 주류를 차지했다. 특히 왕양명의 제자인 왕간(王艮)은 태주(泰州)학파를 창립했는데, 더욱 선학(禪學)에 깊이 들어가 그 학풍이 더욱 격렬해져 자주 '광선(狂禪)'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주학파는 바로 명대의 거사불교를 대표하는 탁오 이지와 원굉도 거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지 거사는 북경에서 임관했을 때, 왕양명의 저작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남경으로 부임했을 때, 왕양명의 제자인 왕기(王畿; 龍溪)와 태주학파의 나여방(羅汝芳; 近溪)을 만났고 태주학파를 창시한 왕간(心齋)의 아들인 왕벽(王襞; 東崖)을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에는 초굉(焦竑; 弱候), 경정리(耿定理; 子庸) 등의 태주학파 학자들과 깊이 교류했다. 이지 거사는 태주학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극도의 평가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의 <분서(焚書)>에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당시 양명선생의 문도들은 천하에 두루 있었으나 오직 심재(왕간)가 가장 뛰어났다…. 심재의 후예로 서파석(徐波石), 안산농(顔山農)이 있었다. 산농은 포의강학(布衣講學; 신분의 귀천, 지위의 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침을 폈다는 의미)하며 당당하게 한 세상을 풍미하다 모함을 받았고, 파석은 관리로서 군대를 지휘하다가 광남(廣南)에서 죽었다. 용이 구름을 부르고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듯이 각각 한 세상을 삶이 이렇구나. 심재가 참으로 영웅이니, 그 문도들도 또한 영웅이로다. 파석의 후예로 조대주(趙大洲)가 있었고, 대주 후예로는 정할거(鄭豁渠)가 있다. 산농의 후예로는 나근계(나여방)와 하심은(何心隱)이 있다. 심은의 후예로 전회소(錢懷蘇)와 정후태(程後台)가 있다. 이러한 한세대의 학풍은 매우 비슷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분서(焚書)>권2)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조사선에 깊이 매료돼 격렬한 학풍을 보이고 있어 불교의 거사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이지 거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왕기 거사는 '양지'를 직접적으로 '불성'으로 보아 그 학설을 전개했다. 유가에서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명학 정종(正宗)의 적전(嫡傳)에 이름을 넣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지 거사는 "성대(聖代) 유종(儒宗)에 있어서 인천안목(人天眼目)을 보임에 흠 하나 없는 백옥(白玉)이요, 완벽하게 제련된 황금이다"(<분서>권3)라고 평하고, "세간에서 학문을 펼침에 있어 자고로 용계 선생(왕기)과 같은 이가 없었다"(<분서>권2)라고 극찬을 했다. 이지 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태주학파 가운데 나여방과 초굉 거사 또한 유명하다.

나여방(1515~1588) 거사는 자가 유덕(惟德)이고, 호는 근계(近溪)로서 강서(江西) 남성(南城) 출신이다. 가정(嘉靖) 32년에 진사에 급제해 태호(太湖)의 지현(知縣)에 임명됐으며, 형부주사(刑部主事)에 이르렀다가 후에 운남(雲南) 부사(副使)로 좌천됐다. 거사는 안산농의 제자이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석전(釋典; 佛典)의 현종(玄宗)을 접해 깊이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수많은 선사들과 교류해 '양지'의 '현성(現成)'에 주력했고, "조사선의 핵심을 참답게 얻었던 인물"(<명유학안(明儒學案)>권34 <태주학안>)로 평가됐다. 이지 거사도 일찍이 거사가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뛰어난 가르침을 펼침에 존경을 표했고, 대강(大江; 황하)의 남방과 장하(長河; 장강)의 북방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 것에 대한 찬탄을 보이며 류하혜(柳下惠; 춘추시대의 현자)의 '관화(寬和)'와 대웅씨(大雄氏; 부처님)의 '자비'를 갖춰 불교와 유가의 미덕을 한 몸에 실현한 인물로 평했다.(<분서>권3)

초굉(1540~1620) 거사는 자가 약후(弱候), 호가 담원(澹圓)으로 강녕(江寧; 현 南京市에 속함)사람이다. 만력 17년(1589)에 진사에 합격해 한림원의 수찬(修撰)을 지냈다. 경정향(耿定向)과 나여방에게 사사받았다. <태주학안>에 따르면, 거사는 "탁오(이지)의 학문을 독신(篤信)해, 이지가 성인(聖人; 佛)은 아닐지라도 '광(狂)'의 한 글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 성문(聖門)의 두 번째 자리에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불학(佛學)을 성학(聖學)으로 삼았다."(<명유학안>권35)라고 해 이지 거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거사는 어려서 군서(群書)를 널리 배워 최종적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특히 심성을 중시해 불경에서 설하는 바가 유가 심성론의 정의(精義)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사는 "유가의 '그 마음을 다함이 그 성품을 앎'이라는 것이 불교에서의 '식심견성(識心見性)'이니, 양교가 서로 통한다"고 강조했다.(<명유학안>권35) 만년에 거사는 점차 '염불삼매'에 전념해 수행하는데(<거사전>권44), 이는 바로 원굉도 거사의 영향이었다.

이지 거사를 스승으로 삼은 원굉도 거사 역시 수많은 태주학파의 인물들과 교류를 했는데, 최굉 거사 이외에 도망령(陶望齡), 관지도(管志道), 구여직(瞿汝稷) 등의 인물들이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44에는 이들을 비롯해 15 거사들의 전기를 싣고 있는데, 대부분이 태주학파에 속한 거사들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관지도(1536~1608) 거사는 자가 등지(登之)이고 호는 동명(東溟)으로 강소(江蘇)의 태창(太倉)사람이다. 거사는 경정향의 제자로서, 융경(隆慶) 5년(1571) 진사에 합격했고, 남경의 형부주사를 역임했다. 어려서 경사(京師)에 공입(貢入)되어 "서산(西山) 벽운사(碧雲寺)에 머물며 <화엄경>의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을 읽다가 홀연 <주역>의 건원(乾元) 용구(用九)의 의미를 깨달아 심신을 반관(反觀)하고, 고금의 성현을 조견(照見)했다고 한다.(<거사전>권44) 이로부터 거사는 삼교일치를 주장했는데, 현존하는 원굉도 거사의 문집 가운데 불교와 유가의 관계를 논한 편지가 전한다.

도망령(1562-1609) 거사는 자가 주망(周望), 호는 석궤(石簣)로 절강(浙江) 소흥(紹興)사람이다. 만력 17년에 회시(會試)에서 수석을 했고, 전시(殿試)에서 3등에 급제해 한림의 편수(編修)를 제수 받았다. 관직은 국자제주(國子祭酒)에 이르렀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임하고 귀향했다. <거사전>에 따르면, 거사는 주여징(周汝澄; 호는 海門으로 왕기의 제자)에게 배웠고, <명유학안>에서는 거사의 학풍을 "무선무악(無善無惡)으로 바로 불교에서 설하는 '공(空)'이다"(권36)라고 평하는 것처럼 '무선무악'을 중심으로 전개했는데, 특히 "선함이 없음(無善)은 바로 선(善)으로 나아가는 첩경이고, 그릇됨이 없음(無非)은 그릇됨을 물리치는 핵심"(<헐암집(歇庵集)>권10)이라고 했다. 거사는 특히 원굉도와 초굉 거사와 매우 밀접했는데, "초굉과 함께 관직을 맡아 서로 경책했으며, 비로소 성명(性命)의 학문을 연구했다. (모친의 병환으로) 휴가를 청해 귀향하는 길에 오강(吳江; 吳縣의 오기)을 지나다가 원중랑과 3일 동안 학문을 논했다"(<거사전>권44)고 전한다. 거사는 만년에 운서주굉(雲棲袾宏) 선사에게 귀의하여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여러 친우들과 함께 '방생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쳤다.

만력연간(1573-1620)에 이르러 불교계는 자못 '부흥'의 모습을 보였다. 왕원한(王元翰)의 <응취집(凝翠集)>에는 만력연간의 불교계 상황에 대해 "그때 경사(京師)에는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마치 숲을 이룬 것과 같이 많았다.

선지식으로는 달관(達觀), 랑목(郎目), 감산(憨山), 월천(月川), 설랑(雪浪), 은암(隱巖), 청허(淸虛), 우암(愚庵) 등이 있었고, 재관(宰官)으로는 황신헌(黃愼軒), 이탁오(李卓吾; 李贄), 원중랑(袁中郎; 袁宏道), 원소수(袁小修; 袁中道), 왕성해(王性海), 단황연(段幻然), 도석궤(陶石簣; 陶望齡), 채오악(蔡五岳), 도불퇴(陶不退), 채승식(蔡承植) 등 제군들이 있어 서로 왕래하며 도를 구했다"라고 적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인물들이 승속을 불문하고 모두 양명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양명학이 불교의 영향으로 출현했지만, 양명학의 흥기는 다시 명대에 시들어가는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불교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지와 원굉도 두 사제지간이다.

그림 · 김흥인

그러나 이지 거사의 자살(1602)과 병약했던 원굉도 거사가 사찰에서 병사(1610)하면서 명대 거사불교의 부흥은 오래도록 유지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 거사가 남긴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고, 그는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일면을 장식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